

바이든·트럼프 대선 ‘마라톤 레이스’ 막 올랐다

조지아·미시시피·워싱턴 경선 압승 대선 후보 지명 ‘매직넘버’ 확보 이후 경선 상관없이 본선 체제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이 각각 민주당과 공화당 대선후보 선출에 필요한 대의원 과반을 확보했다. 이로써 이후 경선 결과에 상관없이 두 사람은 양당의 대선 후보 자리를 확정짓게 됐다. 바이든 대통령은 12일(현지시간) 조지아주 민주당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승리해 전체 대의원

3932명의 절반을 넘긴 데 이어 미시시피와 워싱턴 주 경선까지 휩쓸며 2천명이 넘는 대의원을 손쉽게 거머쥐었다. “미니 슈퍼 화요일”인 이날은 조지아를 포함해 미시시피, 하와이, 워싱턴주에서 경선이 진행됐다. 민주당은 자치령 북마리아나제도과 해외 거주자 프라이머리도 진행했다. 지난 5일 ‘슈퍼 화요일’ 경선 직후 니키 헤일리 전 유엔대사 사퇴로 단독 후보 상태인 트럼프 전 대통령 역시 공화당 대선후보 확정에 필요한 ‘매직 넘버’ (1215명)를 무난히 넘어섰다. 이에 따라 이후 경선과 무관하게 바이든 대통령은 오는 8월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트럼프 전 대

통령은 7월 공화당 전당대회에서 각 당의 대통령 후보로 선출될 최소 조건을 충족하게 됐다. 두 전현직 대통령이 이미 확정된 리턴 매치에 마지막 쉼기를 박으며 미국 대선은 11월 5일 투표일을 8개월 가까이 앞두고 ‘마라톤’ 본선 체제로 전환을 완료할 전망이다. 헤일리 전 대사 사퇴 시점을 실질적인 본선 전환점으로 환산할 경우, 244일간 레이스가 시작된 것이라고 퓨리서치 센터는 분석했다. 이는 2004년 공화당 조지 W. 부시 당시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였던 존 케리의 본선 대결(244일)과 동일한 수준이다. 2000년 부시 전 대통령과 민주당 후보였던 앨

거 전 부통령의 싸움 역시 243일 전 시작했다. CNN은 “2000년, 2004년 선거와 이번 대선의 차이점은 당시에는 유권자들이 자신의 선택에 열광한 반면, 이번에는 유권자의 상당수가 바이든이나 트럼프 이의 선택지를 원한다는 점”이라고 지적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이미 본선 경쟁에 시동을 걸었다.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은 경선을 앞둔 지난 9일 경합주 가운데 하나로 분류되는 조지아주를 동시에 찾아 첫 유세 대결을 벌였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조지아주의 주도 애틀랜타에서 열린 유세에서 “오는 11월 투표에 우리의 자유가 정말로 달려 있다”면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다

시 집권하면 민주주의가 위협된다고 경고했다. 반면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마조리 테일러 그린 의원의 지역구를 방문, 이민 문제를 집중 공격하며 “조 바이든이 우리 국경과 이 나라의 국민에게 한 짓은 반인륜 범죄이며 그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워싱턴포스트(WP)는 “본선 경쟁 막이 오르며 바이든 대통령과 트럼프 전 대통령이 이민, 경제, 낙태 등 쟁점을 비롯해 서로의 건강 문제를 놓고 날을 세우고 있다”며 “바이든 대통령은 국정연설로 캠페인 막을 올렸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공화당 전국 위 개편으로 군자금 마련을 위한 길을 확보했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日 첫 민간개발 로켓 폭발

일본에서 처음으로 민간기업 주도로 개발된 소형 로켓이 13일 발사 직후 폭발했다. NHK와 교도통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우주 벤처 기업 스페이스원(スペースワン)은 이날 오전 11시께 혼슈 와카야마(和歌山)현 남부 구시모토초(串本町)에 있는 전용 민간 로켓 발사장 ‘스페이스 포트 기어’에서 ‘카이로스 1호기’를 쏘아 올렸다. 그러나 카이로스 1호기는 발사 수초 후 공중에서 폭발했다. 주변에는 파편이 떨어졌으며 물체가 낙하한 곳에서는 화염과 연기도 발생했다. 로켓 폭발로 인한 부상자 정보는 없다고 NHK는 전했다. 스페이스원은 애초 카이로스 1호기 발사 약 50분 뒤에 고도 500km에서 지구 궤도에 위성을 진입시킬 계획이었다. 스페이스원은 아직 로켓 폭발 원인은 파악하지 못한 상태다. 이 회사는 일본 대기업 캐논전자와 IH이 에어로스페이스 등이 출자해 세계적으로 시장 확대가 예상되는 소형 위성 발사 시장 참여를 목표로 2018년 설립됐다. 카이로스 1호기는 이 회사가 개발한 길이 18m, 무게 23t의 소형 고체연료 로켓이다. 로켓에 탑재됐던 위성은 일본 정부가 의뢰한 소형 위성으로 개발비는 약 11억엔(약 98억원)이다. /연합뉴스



청소년 환경운동가 툰베리, 경찰에 연행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가운데)가 12일(현지시간) 스톡홀름 의회 앞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연행되고 있다. 이날 툰베리 등 일부 청소년 환경운동가들은 의회 입구를 막아서고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제지됐다. /연합뉴스

EU도 “이스라엘, 라파 지상전 안돼”

정상회의 초안 공개...이스라엘 총리, 강행 의지 거듭 밝혀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 정상들도 이스라엘에 가지지구 최남단 라파에서 지상 작전을 벌이 말라고 촉구할 예정이라고 로이터 통신이 12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로이터 통신이 입수한 초안에 따르면 EU 정상들은 21~22일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리는 EU 정상회의에서 이같이 촉구하고 가지지구에서 지속 가능한 휴전으로 이어지는 즉각적인 인도주의적 (교전) 중단을 요구할 예정이다. 초안에는 “유럽이사회는 이스라엘 정부가 100만명이 넘는 팔레스타인인들이 인도적 지원에 대한 접근과 전투로부터 안전을 찾고 있는 라파에서 지상 작전을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로이터는 다만 초안이 정상회의에서 채택되면 EU 27개 회원국 정상 모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전했다. 이집트 국경과 맞닿은 라파에는 가지지구 인구 3분의 2에 달하는 140만여명이 몰려있는 것으로 추산된다. 국제사회는 이스라엘이 이곳에서 지상전을 벌일 경우 대규모 인명피해가 우려된다고

자제를 촉구해왔다. 앞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도 이스라엘의 라파 공격이 ‘레드라인’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9일 미국 MSNBC 방송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이 라파를 침공하는 것이 ‘레드라인’이 될지에 대한 질문을 받고 “그것은 레드라인”이라고 답했다. 그러나 미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라파로 진격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고 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친이스라엘 로비단체 마이스라엘 공공정책위원회(AIPAC) 회의 영상 연설에서 라파 지상 작전을 강행할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네타냐후 총리는 “우리는 민간인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면서 라파에서 일을 끝낼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네타냐후 총리의 이 같은 발언은 EU 정상들이 이스라엘에 라파 지상 작전에 돌입하지 말라고 촉구할 계획인 가운데 나온 것이라고 전했다. /연합뉴스

대선 앞둔 푸틴 또 핵위협 “존립기반 위협시 사용 준비”

“러, 핵무기 전투준비 태세”

러시아는 군사기술적 면에서 항상 핵전쟁에 준비돼 있다고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오는 15~17일 대선에서 5선을 노리는 푸틴 대통령은 이날 공개된 자국 TV 방송 ‘로시아 1’, ‘리아노보스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가 핵전쟁에 준비돼 있는가’란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푸틴 대통령은 “국가의 존립과 관계되거나 우리의 주권과 독립이 훼손되거나 할 때 핵무기를 사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핵무기 사용 원칙은 러시아의 핵전략에 명

시돼 있으며 그것은 바뀌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로이터통신은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국가의 존재가 위협받을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준비가 돼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푸틴 대통령은 “군사기술적 측면에서 우리는 당연히 준비돼 있다. 핵무기들은 항상 전투 준비태세에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우크라이나전에서 전술핵무기 사용을 검토했는지에 대한 질문에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말했다. 그는 “몇 하러 대량살상무기를 사용하나. 한번도 그럴 필요가 없었다”면서 “그러한 생각을 한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어 러시아의 3대 핵전력(Nuclear triad)은 미국 등 다른 핵보유국의 그것보다 더 현대적이라고 강조했다. 3대 핵전력은 핵무기를 운반할 수 있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전략폭격기 등을 통칭한다. 푸틴은 “우리의 3대 핵전력은 다른 나라의 3대 핵전력보다 더 현대적”이라면서 “전반적으로 (핵무기) 운반체와 탄두 기준으로 우리는 (미국 등 다른 핵보유국들과)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우리 것이 더 현대적이다. 이는 모든 전문가들도 안다”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추정수익 1천억원 ‘대박’

가상화폐 비트코인 가격의 무서운 상승세에 중미 엘살바도르가 ‘대박’을 치고 있다. 세계 최초로 비트코인을 법정통화로 채택하고 국고를 동원해 이 가상화폐를 사들이는 것으로 잘 알려진 엘살바도르 정부는 현재 70%에 육박하는 미실현 매도 이익을 거두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12일(현지시간) 엘살바도르 비트코인 투자 수익을 실시간으로 보여주는 사설 웹사이트 나이트 트레이더를 보면 엘살바도르는 최근 비트코인 가격의 무서운 상승세에 힘입어 68%대의 잠정 수익률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알려진 것만 2832개의 비트코인을 보유한 엘살바도르의 매도 추정 수익은 8357만 달러(1095억원 상당)에 이른다. 나이브 부켈레(42) 엘살바도르 대통령은 자신의 소셜미디어 엑스(X·옛 트위터)에 ‘엘살바도르가 비트코인 투자 전략으로 8300만 달러 수익을 올리고 있다’는 다른 이용자의 게시물을 리트윗하기도 했다. 2021년 9월 법정통화 도입 후 비트코인을 틈틈이 매수한 엘살바도르 정부는 지금까지 1억2천190만 달러(1598억원 상당) 어치를 사들인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학폭 피해자에 따스한 바람이 닿기를

“ 지금도 어딘가에서 언제 죽을까, 어떻게 죽을까, ‘나 죽어도 우리 가족들 행복해야 할 텐데’라며 죽음을 생각하며 걱정과 고민을 하는 우리의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든 돕고 싶습니다. 저에게는 그 부분이 가장 간절했어요.”

이호동 교사가 학창시절 겪은 피해 경험 등을 담아 피해자와 가족에 건네는 위로

저기 환한 달이 되려나/ 혼자 떠난 너의 초행길에/ 나는 너의 달이 되려나
어디로 가느냐/ 갈 길은 어느나/ 가다가 길 잃거든/ 나를 보고 가거라/ 나를 안고 가거라.
- 이호동 <달이 되려나>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학교폭력예방 7중 시스템 “화제”
이호동 작가의 글, 부인 박소영 교사의 삽화 감동과 향기, 따스함을 전하다

<따스한 바람이 너에게 닿기를>
저 자 이호동 | 삽 화 박소영 | 출판사 가현정복스


